

'천 년 부안 고려청자, 차·향을 품다'

부안청자박물관, 25일부터
'도자 다기 복원품' 전시회 개최

부안청자박물관에서는 오는 25일부터 내년 4월 21일까지 박물관 1층 기획전시실에서 '천 년 부안 고려청자, 차(茶)·향(香)을 품다'라는 주제로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부안의 고려상감청자 차 도구를 비롯한 조선시대 분청사기, 백자 등 진품 도자유물 속에 숨겨져 있던 차도구를 찾아 내어 복원한 청자 표주박모양 주전자 등 작품 80여점과, 이를 현대화하여 일반인들이 실생활에서 청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상품화 한 다기 세트, 향수병, 디퓨저 용기, 향초 용기 등을 선보이게 된다.

아울러 전통 차(茶)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부풍향차보(扶風鄉茶譜)'라는 다서에 소개된 칠향차(七香茶)도 전시회에서 선보인다.

부풍향차보는 1754~1756년까지 부안현감을 지낸 이운해(李運海)가 저술한 다서로 증상에 따라 약재를 가미해서 만든 약용차인 7종의 향차에 대한 제조방법과 우려서 마시는 법이 기술되어 있으며, 당시 차를 마시는데 사용했던 차 도구가 그림으로 그려져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원전은 전하지 않으며, 이 책의 일부를 고쳐서 살던 황운석(黃運錫, 1729-1791년)이 1757년경 그의 저서 '이재란고'에 수록하여 전하고 있다.

즉 부풍향차보(扶風鄉茶譜)는 조선 후기 전통 차 문화의 일면을 살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문헌으로, 이를 바탕으로 부안만의 특화된 전통 칠향차를 복원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현대인이 누구나 음용할 수 있도록 '부풍향차'라는 이름으로 상품화 하였다.



부안청자박물관 '도자 다기(茶器) 복원품' 전시회 청자 차도구 복원작품.

부안군 최연곤 문화관광과장은 "이번 전시를 계기로 부안의 역사 문화적 특성을 고스란히 담아 낸 고려상감청자 차도구와 부풍향차보의 칠향차가 한국 전통 차 문화의 역사와 맥락을 밝히는 중요한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 개발상품은 현재 전주 한옥마을 내 '백산관', 국립중앙박물관 뮤지엄샵, 국립민속박물관 등에서도 판매되고 있어 부안을 넘어 한국을 대표하는 수준 높은 전통문화 관광상품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당신은 당신의 봄을 찾았습니까?

소리극 불우현 몽유록 25일-26일 정음사예술회관서 공연

"흥진에 묻힌 분네 이내 생애 어떠한고! 옛사람 풍류를 미칠까 못 미칠까, 수간모욕을 베풀기 전에 두고 송죽 울 울리에 풍월주인 되었어라!"

아름다운 봄을 예찬하고 고고한 선비 정신을 노래한 불우현(不憂軒) 정국인의 '상춘곡(賞春曲)'이 정음사립국악단에 의해 구성된 소리와 아름다운 춤사위의 소리극 공연으로 부활하여, 오는 25일 오후 3시와 26일 오후 5시에 정음사예술회관에서 그 화려한 막을 올린다. <불우현 몽유록>(주호중 연출, 사성구 작)은 정국인이 파란만장한 난세의 소용돌이 속에서 '상춘곡'을 빚어내는 힘겹고도 눈부신 과정을 통해, 역시 광풍이 휘몰아치는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여기 우리들에게 과연 '봄(春)'의 의미는 무엇인지 묵직한 화두를 던지는 작품이다.

정국인은 번거롭고 어지러운 속된 세상의 정쟁(政爭) 속에 부대끼며 살다가, 모시던 주군이 폐위 당하자 정음으로 낙향하여 '상춘곡'을 묵묵히 써내려 갔다. 어쩌면 그의 호처럼 '불우(不憂)', 근심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 속 울분을 이겨내기 위하여 '봄'을 노래했는지도 모른다. 따라서 이 작품 <불우현 몽유록>에서 노래하는 봄은 단순히 화창하고 아름답기만 한 자연의 봄이 아니다. 여기서의 봄은 잃어버린 꿈이며, 당대 백성들이 추구하고 갈구하던 이상향이다. 언제나 고통스러운 겨울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공연에서 활짝 피워내는 '봄'은 그래서 의미가 더 새롭게 다가온다.

사성구(중앙대 겸임교수)작가는 정국



인이 찾고자 했던 봄의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하여 '몽중몽(夢中夢)', 즉 '꿈속의 꿈'이라는 전통서사방식 '몽유록'의 흥미로운 극적구조를 활용하고 있다. 판소리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는 한승석(중양대) 교수가 공연의 작창을 맡았고, 최고의 안무가 박성호(국립국악원무용단) 총무가 춤사위를, 유찬미(중양대) 강사가 편곡을 맡았으며, 정음사립국악단의 강행복 지휘자가 아름다운 음악을 조율하여 작품의 완성도를 높였다. 최고의 소리꾼에서 최고의 연출가로 거듭났다는 평가를 받아온 주호중 연출이 정음사립국악단의 단장으로 부임하면서 만든 첫 소리극 공연이어서 그 기대가 더욱 크다.

/정음=김대환 기자

"옛 기억이 새록새록! 사진으로 보는 추억의 골목놀이"

정음사립박물관, '친구야~ 노오울자, 그때처럼' 사진전 내년 3월3일까지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책가방을 펴개치고 아이들이 풀려들던 골목. 대여섯 명, 혹은 여덟, 열 명으로 무리지는 아이들은 구슬치기와 고무줄 놀이 또는 탈타기 등으로 골목을 채웠다. 여럿이 함께하는 놀이보다는 TV나 컴퓨터 게임 등 혼자만의 놀이가 대세인 요즘은 찾아보기 힘든, 그리운 풍경이다.

정겨운 골목놀이를 담은 전시회가 열렸다. 정음사립박물관이 마련한 '친구야~노오울자, 그때처럼' 사진전이 바로 그것이다. 이번 사진전은 시립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내년 3월 3일까지 이어진다. 전시회에서는 1980~2000년 사이 친구와 형제, 자매들과 뛰어노는 아이들을 담은 사진 50여점을 선보인다. 추억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인 고무줄 놀이와 딱지치기, 구슬치기 등 다양한 골목놀이를 만날 수 있다.

시립박물관 관계자는 "어르신들께는 과거로의 추억여행을 안내하고, 아이들이나 젊은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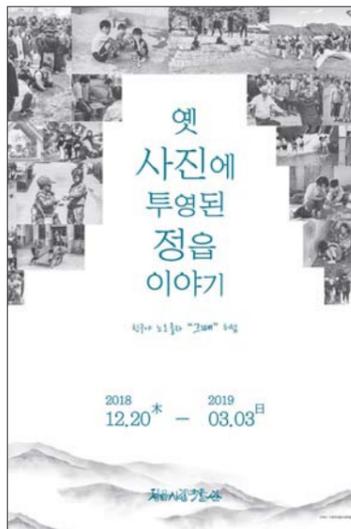
대들에게는 부모세대의 소박하지만 정 넘치던 놀이문화를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전시 외에 연계프로그램으로 사진학 교육과 골목·전통 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전시 기간 중 관람객의 모습을 사진에 담아주고 전시 사진 속 주인공을 찾는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전시는 2018년 두 번의 기획특별전(쌍화차, 민족종교)에 이은 세 번째 전시다. 정음과 옛 놀이를 주제로 한 사진전을 통해 차분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밝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한편 시립박물관은 월요일(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을 연다. 관람과 교육·체험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립박물관으로 문의(0539-6792)하면 된다.

/정음=김대환 기자



원광대 원불교사상연구원, 오늘 제228차 월례발표회 개최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원장 박맹수) 대학중점연구소는 오늘 오후 제228차 월례발표회를 개최한다.

첫 발표는 원광보건대학 김자옥 교수가 '간호에서 디오니소스적 긍정철학과 Parse의 인간되어감에 마음공부 활용 방안'을 주제로 진행하며, 평소애 연마한 서양철학과 원불교학을 자신의 전공인 간호학에 접목시켜 새로운 인간관을 제시할 계획이다.

조선대에서 간호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김자옥 교수는 여성철학회 편집간사, 칸트철학회 편집간사를 역임하고, 캔터키주립대학 방문교수를 거쳤다.

이어 원광대 교육학과에서 '원불교 감사마음공부 프로그램'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장흥교당에 근무하는 정정인(현우) 교무

가 '청소년 인성교육을 위한 원불교 감사마음공부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에 대해 발표한다. 또한, 마지막 발표는 '원불교 2세기 교화방안 연구'를 주제로 장흥교당 정향욱(현숙)교무가 나서며, 정향욱 교무는 원광대 불교학과에서 '원불교 개혁사상의 역사적 전개와 특징'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제1회 원불교사상연구원 신진연구자학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토론은 원광대 염승준 교수와 원불교대학원대학교 정상현 교수, 원광대 불교학과 박사과정 정명규 교무 등이 맡을 예정이며, 원불교가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어떤 사회적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자리로 기대되고 있다.

/익산=우병희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